

# 부엌 構造와 生活의 대응을 바탕으로한 濟州道 民家 類型의 文化地域的 解釋

李熙奉 (중앙대 건설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宋秉彦 (중앙대 대학원 건축미술학과 석사)

## 1. 序論

### 1-1 背景

한국 건축계에서 1970년대에 새로이 시작되어 30년 연륜을 갖는 민가 실측조사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그런데 건축계에서 집을 물질 위주로 보아 실측조사후 유형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은 이미 한계에 와있다. 건축물이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건축학 입문시 안내해주거나 자체내의 적합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의 부재로 선언적 구호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집을 생활과 물질의 짝으로 보고자 학제간 접근으로 문화인류학의 이론 틀과 방법을 사용한다. 편의상 나누어진 전공의 틀을 깨어 하나의 대상을 총체적으로 볼 때 대상이 제대로 보임과 동시에 역으로 각 전공이 풍부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 1-2 方法

이 집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 物質(건축형태)과 文化(생활)를 하나의 짝으로 보고자 한다. 이때 文化(culture)는 '건축문화의 해'에서와 같이 교양, 세련됨 만이 문화가 아니라 저속함을 포함, 보통사람들의 문화이다. 또 物質文化가 아닌 物質이란 文化產物을 만들어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할수 있다.<sup>1)</sup> 文化人類

學의 現場研究(field study)의 틀로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의 문화기술(文化記述)적 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주로 사용한다.<sup>2)</sup> 제주 민가를 관찰하여 일부 실측도 하지만 주로 기존 건축학계에 알려진 도면을 사용하고 현지인 거주자를 면담하고 주제보자(主提報者)(informant)를 선정, 집중 면담한다. 넓은 시각으로 시작하여 점차 좁은 주제로 초점을 맞춰 나간다.

### 1-3 對象

총23개 마을(성읍리, 하도리, 송당리, 봉성리, 대정리 등)의 민가를 관찰하고 거주자중 면담 주제보자로 주로 7,80대 노인층을 선정하였다. 민가 수는 70여호(기존 연구의 민가+일부 추가 실측)가 된다.

## 2. 發見

### 2-1 發見內容: 정지거리<sup>3)</sup> 별동형

1) 이회봉, "주거와 문화", 「주거론」 제2장에 (대한건축학회, 기문당 1996) 건축에서의 '문화'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2) 이회봉 번역, James Spradley의 *Participant Observation*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고교서, 1988)과 *Ethnographic Interview* 가 교본이 된다.

3) 제주도 방언 '거리'는 육지의 '채'에 해당한다. '안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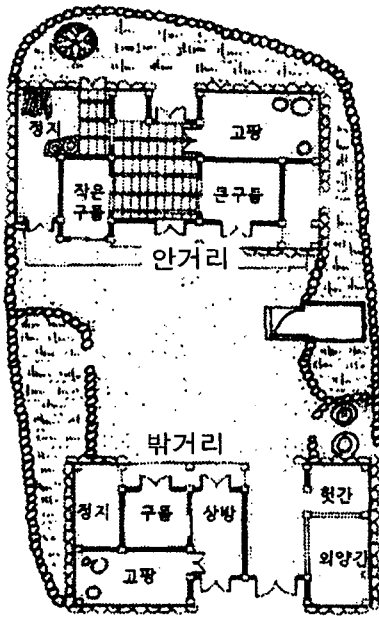


그림1. 일반적으로 알려진 '안/밖거리형' 서부 신임리 (송병언 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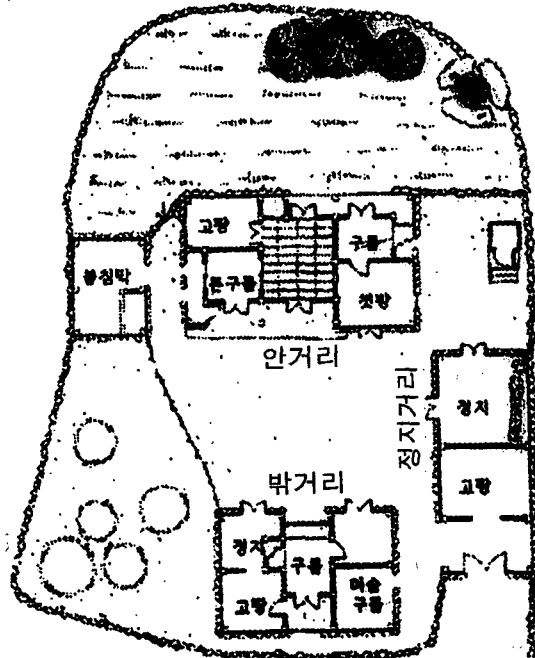


그림2. 새롭게 발견된 '정지거리별동형' 동부 함덕리 (송병언 실측)

안채, '밖거리'=바깥채, '모커리'=모서리채(안거리와 밖거리와 직각되게 모서리에 있어서 마당을 감싸는 별채)가 있다.

제주도 민가는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가 마주 보는 평행배치형이 일반적으로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그림1).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정지가 별도로 독립하여 두거리 사이에 위치한 모거리에 'ㄷ'자형으로 배열된 형(그림2)이 동부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도 전역의 일반적 민가의 안거리 유형을 보면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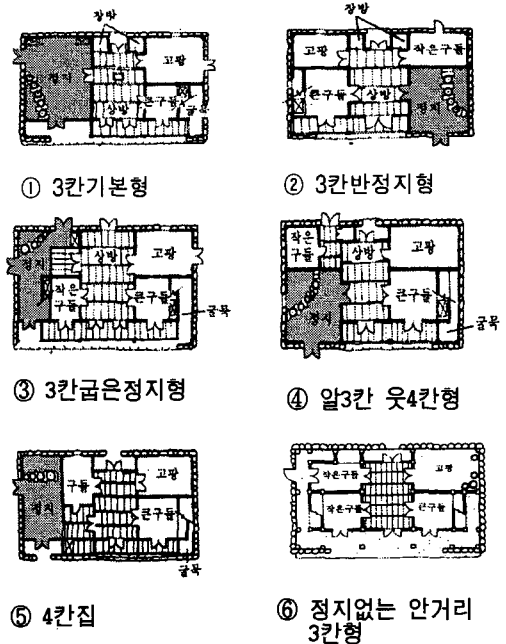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민가의 안거리 평면 형태



그림 4. 정지거리 별동형 사진

이 중 ⑥ "정지없는 안거리 3칸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거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지가 없고, 별도로 독립하여 정지거리로 빠져나간 유형을 본 논문에서 "정지거리 별동형"이라 이름

짓는다. 이 유형은 동부에서만 나타나고 서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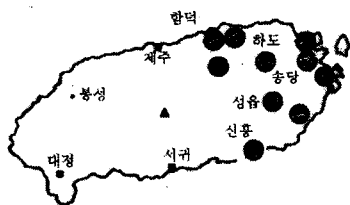


그림 5. 정지거리 별동형 마을의 분포

### 2-2 정지거리별동형의 분포와 원인분석

이 유형이 건축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가 연구 권위자 김홍식 교수는 정지거리 별동형 정지가 정의골에 나타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지간이 안거리나 밖거리 몸채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 모커리에 따로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상스럽게도 정의골에서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오키나와 민가에서 정지간이 독립되어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남태평양적 간접이 기법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수 있다.<sup>4)</sup>

그 기원에 대하여 김홍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은 새생활 운동(1920년대)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운동이 주로 위생적인 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의 개량으로 나타났다. . . 정지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일이며 필자가 1971년도에 찾아갔을때만 해도 정지간을 따로 둔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sup>5)</sup>

어쨌든 판채에 정지간을 마련했던 집은 모두 기와집이고 부자집이다. 부자집인 경우에 집안에 연기가 자욱한 것은 대단히 비문화적이었으므로 판채 정지간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초집인 경우에는 다르다.(464쪽)

그러나 어느때가 정의골에서는 판정지간을 시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최근에 개조한

사람들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함께 시행하기도 했다. . .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발생했을 것일까? 우선은 관공서 건물이 그랬을법하고 조선말 관리들이 하숙을 했다는 고평호씨 가옥의 경우 밖거리에는 정지간이 없었다. . . 그런 가운데서도 제주의 주생활에 대단한 변화가 온다. 개화파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화운동의 힘이 전 제주도를 휩쓸었는데 이때(1920년대 후반) 일제는 신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 . 이때 몇몇의 집들이 선각자에 의해서 예전의 양반집처럼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이는 안거리 정지간을 버리고 판 부엌을 쓴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안거리와 밖거리의 탄살림을 부정하는 개념으로서 제주식 의식구조로 볼때는 혁명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부자간에 경영체제를 육지처럼 같이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이후 제주의 전통적 농사는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정의골은 전통적으로 도시생활을 유지했으므로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하는 주의식과는 달랐다. 모커리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자리가 빌 수밖에 없었다. 이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집을 슬레이트로 개조하게 된다. 이것은 집의 개조를 촉진했고 이로 말미암아 판정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465쪽)

양반들이 따로 정지간을 마련하던 습속이 도시적 삶을 영위했던 목안지역이나 정의고을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466쪽) 6)

또 김석윤은 논문에서 정지거리에 대해, “창건주가 지배층이거나 부농계층에 보편화된 경향”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신분상의 권위와 명분을 위한 형식을 우선시키는 성리학적 이념이 별동정지를 선택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sup>7)</sup>

한편 양택훈은 60년대에 안거리 개축시 부엌공간을 구들로 개축하면서 부엌기능은 별동으로 이동하였다.”<sup>8)</sup>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지의 변화는 작은 구들이 없는 3칸집에서 정지를 분화하여 개조한 이후 난방과 취사와 종합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작은구들의 후면에 위치한 부엌이

4) 김홍식의, 「제주의 민속 IV」(제주도, 1993) 463쪽,  
5) 김홍식, 「한국의 민가」(한길사 1992) 122-26쪽

6) 김홍식의 「제주의 민속 IV」, 464-66쪽.  
7)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96, 109쪽  
8)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110-11쪽

구들 또는 고풍으로 개조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나는데, 이때 별동의 기능이 부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소 길게 인용한 건축학계의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 정지거리 별동형 주거에 대해 1) 예외 특수형(정의골에만) 2)부유계층형 또는 양반형 3) 최근 개조한 신형이라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위 선행 연구의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의심하게 된다. 현재 서울식, 새마을식의 전국 표준형으로 대부분의 집들이 신축, 개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동형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부 그대로 복원) 동부의 다수 마을은 동네 집 전체의 반 정도, 또 소수 마을에서는 몇채가 그 흔적이 보인다. 면담을 통하여 과거기억을 추적하면 훨씬 더 많았고 지역에 따라서 30%에서 80%정도까지도 정지거리를 별동으로 만들었음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중간살이 이상이면 정지거리가 있었수다.아주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있었수다.”(동부, 신평리, 70세 남)

“정지거리가 다 이서나서[있었다]. 농촌이니까 정지거리가 다 넓주게. 정지간이 넓어.”(동부, 성읍리, 75세 여)

“이제야 정지를 혼디[한군데] 허지. 옛날에는 따로 저쪽에[안채 옆에 별동으로] 짓어나서. 옛날집은 어디든지 다 따로[별동형으로].”(동부, 신흥리, 64세 여)

“정지거리가 밖으로 나온 집이 한 50%가 안되어서. 한 30%엔 생각허른 되지.”(동부, 함덕리, 81세 남)

“옛날에는 정지가 따로 해서[지었다]. 판거리로 해서 많이 나왔지. 열집이면 열집이 다 나왔지.” “정지 열집이면 여덟집 이상이 다 나왔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때부터 정해[그러게 해서]온거라. 요 집도 슬레이트집이주만 지붕만 바꿨주 저것이 정지거리라. 우리집도 마찬가지라.”(동부, 하도리, 69세 남)

위 면담에서 정지거리 별동형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정의골 뿐 아니라 동부에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일반형이며, 근래에 (일정때 포함하여) 개조되어 나타난 신형이 아니며, 또 부자나 양반의 전유물도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한편, 제주도의 서부 쪽에 가서 면담한바, 사람들은 정지가 집밖으로 나가 별동으

로 존재할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지가 혼집에 있어수다. 정지가 밖으로 만나완 마심.[안나갔습니다.]”(서부, 남읍리, 84세, 여자)

“정지는 다 안에 있어서. 정지가 밖에 나온디는 없어서.”(서부, 동이리, 82세, 여자)

“정지가 무사 따로 나가게.”[정지가 왜 따로 나갑니까.] (서부, 봉성리, 88세,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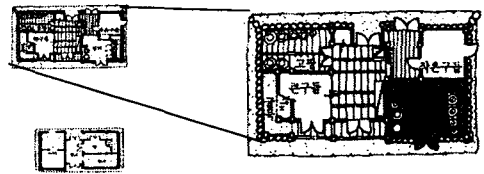


그림 6. 서부 안거리 정지형의 건물배열과 정지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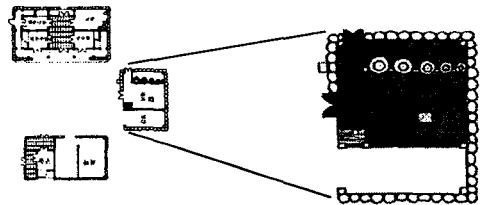


그림 7. 동부 정지거리 별동형의 건물배열과 정지평면

심지어는 평생을 집짓는 일을 해온 서부지역의 목수조차 정지가 집밖으로 나온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쪽은 정지가 나온데가 없었고, 동쪽엔 있다고 얘긴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정지거리 현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정도이다. (서부: 유수암리, 76세)

정지거리 별동형은 서부에서는 본 연구의 면담에서도 기존 선행 연구의 실측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동부에만 존재하는 유형임을 알수 있다.

### 3. 住居類型과 生活文化와의 대응

#### 3-1. 家族制度상의 分家類型 차이

새로이 발견된 정지거리 별동형 제주민가는

단순히 건축형태라는 物的 類型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정지거리라는 물적공간을 가족제도로 대응시켜 형태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상의 分家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남도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재석의 「제주도의 친족조직」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9)</sup>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直系親이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더라도 토지의 소유, 경작 등의 생산활동은 물론 취사 및 기타의 소비활동 등 일체의 경제활동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의 가족은 次, 三男은 물론 長男이라도 결혼하면 分家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울타리 안에 住居를 같이 하더라도 경제단위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통계에서도 언제나 제주도의 가구당 평균인원수는 현저히 작게 나타난다.<sup>10)</sup> 김광언은 「한국의 주거민속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1)</sup>

제주도의 관행은 내륙의 그것과 대조적이다. 이곳에서는 재산을 아들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며 장남도 혼인하면 살림을 따로 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들내외에게 집을 내어주고 자신들은 다른 집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형편이 되지 못하여 한집에 살 때에는 아들 내외가 안거리를 차지하고 부모는 밭거리로 물러나는데, 이를 ‘고팡물림’이라 한다. 고팡은 육지의 도장 비슷한 공간으로 이 곳에 곡식을 갈무리하는 까닭에 상속이라는 말 대신 이와 같은 용어가 나왔을 것이다. 이들은 이때부터 생계를 따로 꾸려나가며 부역은 물론 창고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뒷간 까지도 각기 마련하여 쓴다. 말하자면 한울타리서 살되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각살림은 부모에게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질 때 까지 계속되며, 이들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아들의 부양을 받는다.(강조 필자)

신혼 초기에, ‘어린 살림’ 일때 밖거리에 살다가 후에 ‘찬살림’이 되면 축소기의 부모와 교대하여 안거리로 들어가고, 밖거리에 노부부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형편이 좋으면, 아예 집밖 동네로 분가하지만, 아주 어려우면 신혼 초기에 안거리에서 부모와 같이 살아서, 부모와 어린 동생들은 큰구들, 신혼부부는 작은 구들에서 살다가 후에 밖거리로 나가기도 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취사가 분리되지 않고 (경제권도) 기거만 달리하는 경우는 본 논문에서 정의상 分家라고 하지 않는다.<sup>12)</sup>)

일반적으로 한울타리 안에서 부모 자식이 안팎거리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전형적 제주도 안팎거리 분가라는 학계의 기존 이론만으로는 동부에서 나타난 정지거리 별동형 민가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정지가 별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넘는다. 정지거리가 있는 집은 신혼 부부가 밖거리로 나가 살아도 부모와 공동정지를 같이 사용하여 공동취사를 한다. 부모 자식간 ‘솔가름’을 하지 않고 한술밥을 먹고 잠만 따로 잔다는 가구의 미분리를 의미하는, 전혀 ‘새로운 形態-行態 類型’(form-behavior type)이다. 부모와 혼인한 자식 사이에서의 취사 행태 유형이 정지거리라는 건축 형태 유형을 탄생하게 한다. 이는 기존의 제주 민가의 안팎거리 독립적 분가 이론과 정면으로 상반된다.

정지거리에서의 생활에 대한, 당연히 동부지역에 국한된,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며느리하고 아들은 작은구들에서 살고 큰구들에 는 시아방하고 시어멍이 사는 경우가 하나수다.[많았 습니다.] 밥은 정지거리에서 같이 해서 먹었주게[먹 었습니다]. 그리고 잠은 밖거리에 자더라도 같이 밥 은 정지거리에서 행[해서] 먹어서. 형편이 되면 그때

9)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일지사, 1979) 19쪽

10) 해방전 국세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평균 가구당 인원 수는 5.3인인데 비해 제주도는 4.1인이었다. 이창기, “제주도 가구의 크기” 『탐라문화』 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 184쪽

1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민음사, 1988) 118쪽

12) 家口의 정의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0, 이창기 앞책 182 재인용.

는 판데로 분가하고 경했주께.[그랬죠.] 정지거리 하나[하나] 따로는 해먹지 않아서. 정지거리가 있는 집은 정지에서 밥을 다같이 먹어서. 대개는 결혼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 식사도 같이 하고, 안거리·밖거리나 행이네[마련해서] 큰아들이 안거리로 들어오든 노후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정지를 따로 만들주. 자식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살면 서로가 편안하[편안하니까].”(동부,성읍리 77세 남)

“며느리와 시부모가 5-10년 같이 살면은 정지거리에서 같이 식사행[식사해서] 먹었고 판데로 분가하면 따로 식사행 먹었지.”(동부,송당리 75세 남)

즉 동부 지역에서는 상당 기간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자식이 공동 경제생활을 하게되며 다음 면담과 같은 이러한 생활 방식이 정지거리 별동형 주거형태와 일치하게 된다.

“가정 형편에 따라 분가시켰지. 생활이 조금 풍부하면 내 보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분가하는 경우는 작아.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경우가 많지.”(동부, 하도리 69세 남)

### 3-2 生活方式의 차이

사람들의 생활과 건축의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같은 정지라고 하여도 서부의 ‘안거리 내 정지’와 동부의 ‘별동형 정지’에서의 생활이 서로 다르다. 다음은 정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에 대한 동,서부의 면담이다. 먼저 동부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오는 날이나 겨울이나 불을 삼으니까[피우니까] 뜨사서[따뜻해서] 밥허는 디[장소,곳] 말고 봉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다가 불때어서 명석도 짓고 [만들고], 신도 삼고[만들고], 안거리라 해서 상방[마루] 있는 디[장소,곳]는 밤이나밖에[밤에만] 잠 잘때만 가서.[갔어요.]”(동부, 송당리 76세 남)

“옛날에는 다 정지서 밥을 먹습니께. 상차려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무이. 손님이나 와서 상방에 상차려 들어오지. 경허지 않으면(그렇지 않으면) 정지에 걸질까아서 큰 낭푼하나에 숟가락만 걸고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국은 따로 하고. 지금과 같이 따로 따로 먹는 경우는 없고”(동부 함덕리 81세 부부)

위와 같이 동부에서 넓은 면적의 정지는(별동 정지거리) 취사장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가족의 공동 식사공간, 곡식 다듬기나 짚 가공의 작업장, 심지어는 취침장소도 되는 다용도

실로 사용되었다. 반면 서부 지역의 정지는(안거리 부속) 다음 면담과 같이 취사에 제한된 여성 공간이었다.



그림 8. 동부의 정지거리 내부 (상당히 넓음)

“정지에선일 많이 안했져. 여자들이 음식만 했지. . . 정지는 작게하고 부엌이 너르면[넓으면] 여자들이 여러시 앉아서 소드리[소문]가 난다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여자들이 두사람 아니면 세사람 앉게끔 부엌을 만든다 말이여.”(서부, 하귀리, 80세 남)

“옛날은 남녀 차등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말이여 어떻게 대문(상방 판장문)으로 치마 들어가느나랭, 부엌으로 다녔죠. 남자들은 방이나 마루서 밥먹고 여자들은 부엌이나 찻방[챗방]에서 먹었죠. 남자는 양반집이 어떻게 해서 남자가 부엌에서 밥을 먹느나 해가지고 따로 먹었죠”(서부 명월리 50세 남)

또다른 특성은 정지거리 별동형의 정지에는 ‘안뒤’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뒤는 안거리 뒤에 있는 육지의 ‘뒤란’과 같은 공간으로서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돌담으로 폐쇄된 공간인데, 동부의 별동 정지거리 뒤는 따로이 폐쇄공간이 없거나 아예 개방되어 있다. 김석윤의 선현연구에서 안뒤와 정지거리의 불일치가 조사되어있다. 안뒤는 어원이나 생활관습상 안거리 뒤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지가 없는 안거리의 뒤에 놓은 장독대는 실제 취사용도의 정지거리와는 멀리 떨어져있는 불합리한 배열인데, 거주인은 별 불편을 못느낀다고 답했다.<sup>13)</sup>

13)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국민대 석논, 1986) 68쪽. 주로 동부인 조천지역의 연구인데 정지거리 별동형 배치 평면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모두 정지의 안뒤가 없다. 장독이 정지거리 뒤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장 폐쇄도가 높은 안뒤에 위치하는 것은 장독대에 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부의 정지는 여성성이 강한 공간인데 반해 동부의 정지는 여성성이 약화되어있음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남녀 공동 작업공간의 성격이 더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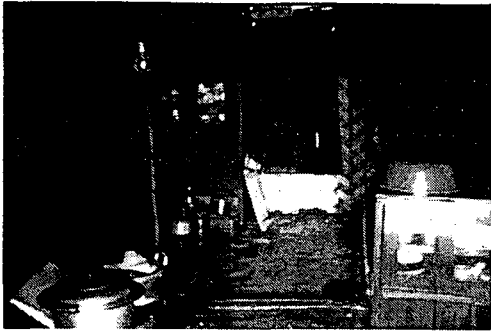


그림 9. 안거리 정지의 챗방

정지와 연관하여 빼놓을수 없는 것이 ‘챗방’이다. 정지와 상방(대청마루) 사이에, 또 구들 뒤(혹은 앞)에 위치한, 정지로 트인 작은 연결공간이다.(그림3의 ③④⑤ 유형에 보임). 선행연구자들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느지역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서부지역에서 연구한 강행생은 챗방을 “식사와 상차리기를 하는 공간으로 가사노동공간과 단란공간 사이에 있는 완충공간”으로 “부엌+챗방+마루로 연결되어 제주도 특징의 하나”라고<sup>14)</sup> 하고 있는데 반해, 동부 성읍 마을에서 조사한 현영숙은 “제주도 특색중의 하나인 챗방이 형성된 곳이 간혹 있으나 성읍마을 본 조사대상에서는 없었음”을 보여준다.<sup>15)</sup> 또한 현영숙은 조사표 해석에서 “정지에서의 식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주도 주택에서 정지는 대부분 안거리와 떨어진 장소에 따로 지어지고 또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정지 바닥이 식사하기 좋게 평평하다.”고 (강조 필자) 하며 “농경생활에서 식사공간을 정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사노동상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해석한다.<sup>16)</sup> 이 해석은 동부에서만 나타나는 ‘별동형 정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당시 연구자가 별동형 정지가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동부에만 있는 현상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제주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부의 안거리 정지형과 동부의 정지거리 별동형의 성분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표1)

	서부	동부
위치	안거리에 부속	별동으로 분리
면적	좁다	넓다
설치	챗방[음식 준비 및 여자들 식사공간]이 형성되기도 함	붕덕불[화톳불]이 위치함
용도	취사 및 여자들의 식사공간	남·녀 여러 사람의 작업, 공동식사 휴식,

표1. 동/서부의 정지의 성분분석

정지거리가 별동으로 나온 원인을 알기위해 거주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집 안 정지에서의 그을음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대한 심리적 정결과 미관, 초가의 화재의 위험성 줄이기로 답한다. 그러한 문제는 서부에도 똑같이 작용하나 서부에서 정지거리 별동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새로운 유형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 “동부 성산지역의 화산토 겉 흙은 잘 뭉쳐지지도 않아 독채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sup>17)</sup> 집단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나온 결과물인 것이다.

동서부의 정지의 다름에대해 그 유래와 기능의 진화론적 변화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주목할만 한 것은 제주도 연구 민족학자 김인호 박사의 견해이다.<sup>18)</sup> 중국 역사기록 과 부엌-정지의 어원학적 고찰을 통하여 제주 민가 연구의

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14) 강행생, “제주도 안팎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축대 석사, 1985)는 서부 애월의 납읍, 남부 (본 연구에서 비동부) 서귀포의 보목 마을을 연구하였다.  
 15) 현영숙, “제주도 전통가옥의 공간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성읍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성심여대 석사, 1982) 31쪽

16) 윗글, 31-32쪽. 정지 식사율은 봄가을 아침 88% 저녁 77%, 여름 아침62%, 저녁 52%, 겨울 아침 22% 저녁 29%로 나타난다.  
 17) 제주학회 발표시 (1999.4.3) 현해남 농학 전공 교수의 토론내용.  
 18)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 (우용출판, 1998)

잘못을 지적하며 原形을 밝히려는 노력이다. 「唐書」(7세기 후반)에 탐라인이 “夏居革屋 冬窟室”의 기록은 학자들의 주장인 초가집 草屋의 오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죽집, 몽고의 게르(ger 일명 파오)의 圓形주거와 中央爐(부섭-부엌의 어원)에서 비롯하여 上房(床房이 아님) 마루의 부섭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상방과 부섭(붕덕불)은 남성공간이고 후에 기능분화에 의해 여성공간 정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제사에 쓸 적갈이나 생선, 목 등은 반드시 부섭에서만 굽고 정지에서는 굽지 아니한다. 이유는 부섭은 신을 모신 상방 maru에 설치되어 있는 聖器이고, 정주간은 일상 음식물을 익혀먹는 汚域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것은 상방의 부섭은 남성의 차지이고 정지간은 여성의 차지라는 인식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점이 기이하게도 통구스의 풍습과 흡사하다. (5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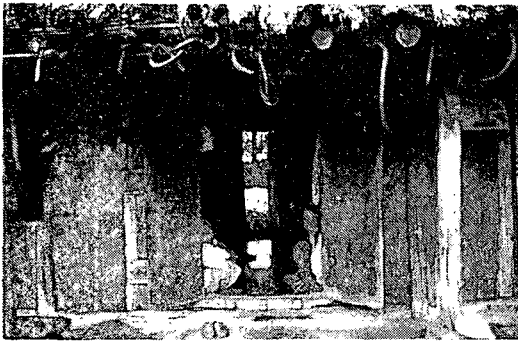


그림 10. 제주도의 '대문'.

‘제주도 초가에는 대문이 없다’는 설을 통렬히 비판하고, 육지인들이 정낭(담 입구 올래목의 차단 통나무)을 대문으로 알고 있으나, 상방 출입문이 곧 ‘대문’임을 밝힌다.<sup>19)</sup> 본 연구에서도 거주자들이 상방 출입문을 ‘대문’이라 부르고 남성의 출입으로만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께가 한치나 되는 여단이 널문으로 되어 있는바 대문의 명칭과 사용은 게르식 단독채 완결형 주거를 정확히 말해준다.(그림10) 그런데 한편 본연구의 중심이 되는 정지의 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에서는 제주 초가에서도 부엌(정지)을 별채로 주옥과 떨어진 곳에 따로 지었고(정지거리: 필자 주석), 가난한 집에서도 上房土室에 부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엌 딸린 공간을 칸사리를 하여 따로 구획해 놓았다. 북방 제족의 막사에는 중앙로가 하나 있을 뿐, 주방이 따로 없다는 것과, 한국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도 원형 토실에 냇돌 부섭이 하나 있을 뿐, 취사장이 따로 없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제주도의 칸사리한 정지니 별채의 부엌[정지거리]이니 하는 것은 후세에 생활상 필요에 따라 변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58쪽, 강조 필자)

위내용은 상방 출입문인 대문의 명칭, 상방의 남성공간, 정지의 여성공간이라는 서부의 정지에는 딱 맞는 설명이 되지만 동부의 정지거리는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가운데 부섭과 입구 대문을 갖는 원초적 圓形革屋 住居가 두 개의 계열, 즉 ‘부섭있는 상방 마루 + 정지’ 계열과 본 연구에서의 ‘정지거리 계열’로 진화되었다고 본다. 정지거리의 흙 바닥에 취사용 붕덕불이 있고 마른 풀(검질)을 깔고 식사도 하고 거실처럼 바닥에서 작업과 생활을 함은 움집과 같은 초기 원시 원형주거(후에 초가로 변화)에서의 생활상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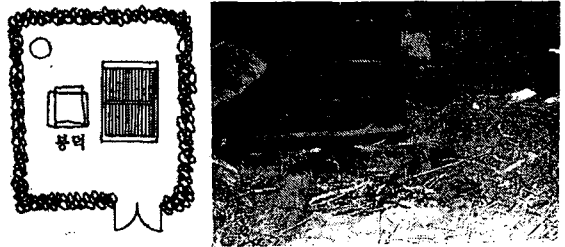


그림 11. 부섭의 모습 (김광언, 463쪽에서)

한편 정지거리의 분화에 대한 김인호의 설명, 즉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은 본 논문에서 동서부의 다른 즉, 서부에서는 여유있어도 나타나지 않음을 전제한다면 반쪽의 설명밖에 되지 못한다. 또 ‘후세의 생활상 필요에 따라 변용’은 오히려 정지거리가 사용 행태를 본다면

19) 위책 489-90



후세가 아니라 보다더 原初的인 物的 形態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설불리 '후세'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쉽다. 김광언의 「한국의 주거민속지」에서 채집한 막살이 외기등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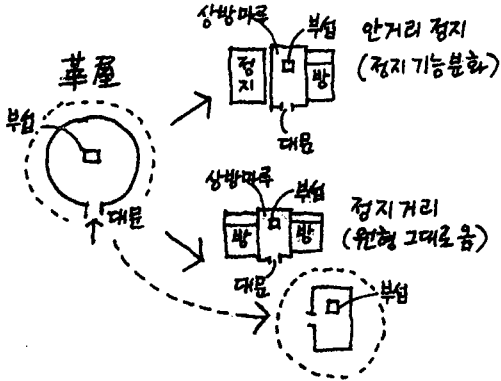


그림 12. 부엌, 정지, 정지거리의 진화 계통도

붕덕과 흙 바닥에 일부 널갈개가 있는데 정지와 방 구분없이, 정지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현존하는 가장 원시적인 가옥의 하나로” 설명한다.<sup>20)</sup> 정지와 정지거리의 계통적 진화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12와 같다.

불충분 하지만 또 다른 추정을 하면 추위에 견디는 솜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옷과 이불에 대한 면담이다.

“옷을 충분히 못입었죠. 홉적삼 한 개로도 겨울에도 보내야되고 솜이 어시난[없으니까]. 이불이 두겹지 못하고 단단했주게. 솜은 서쪽에서 5일장에서 사왔주게. 여긴 면화 안허난.”(동부, 송당리, 70세가량 남)  
 “여자들은 민영허영[베짜는 일을 해서], 이불허연[이불을 만들고]. 여름에는 시간이 없고 겨울에는 여자들은 민영하고 손으로 옷만들영[옷만들어서] 입혔주게. 여자들이 바느질 못허문[못하면] 시집도 못갖주게.”(서부, 봉성리, 76세 여)

동부에서는 솜이 귀해, 붕덕불을 둔 정지를 겨울 주생활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추정해본다.

정지거리 별동형의 기원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지 본 연구에서는 잘 알수 없지만, 근래의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것이라고 추정되고, 양보해도 최소 100

년 이상은 된 확실한 유형임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면담에 의하여 실제 ‘증조 할아버지때’ 지었다는 정지거리의 실물의 연대확인도 하였다(동부 신평리 70대 남). 정지거리가 제주도의 原形인지는 더 검토를 요하지만<sup>21)</sup> 하나의 文化現象임은 분명하다. 다만 제주도 고유의 안팎거리 유형의 무게에 눌러 제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형태상의 유형, 정지거리 별동형은 ‘정지없는 안거리+ 별동 정지거리’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형태상의 유형이 아니라 살림의 단위를 구분해주고 생활의 다름을 보여주는 ‘형태+삶’의 유형이다. 이 유형이 혹자의 주장처럼 만약 우연히 돌연변이로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종이 어느 순간 곧 절멸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가족제도나 경제생활이 형태와 결합체를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축에서 유형(type)은 현재의 설계창작에 유용하므로 일찌기 연구되어왔으나<sup>22)</sup>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빠진 형태 유형은 적용에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유형과 비슷한 개념이나 인류학의 구조주의의 구조(structure) 개념을 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담-가족제도-언어-복식-집을 서로의 대응관계로 보려는 생각이다. 건축에서 표면의 외형구조(표층)만이 아닌 속내용과 결합한 속내용과 결합(심층)하여 보려고 한다.<sup>23)</sup> 정지거리 별동 유형은 건축에서의 형태유형과 구분짓기 위하여 집-가족제도-생활체계가 얽히는 구조주의상의 구조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관찰과 면담을 중심으로 동서부 생활의 차이를 성분분석하면 표2와 같다.

21) 김광언은 별채의 정지거리 가 남방 유구(오끼나와)로부터 온 것으로 본다. 앞책.

22) 예로서 Alan Colqu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Perspecta 12, 1969

23) Bill Hillier은 건축구조공학의 구조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표층구조에 해당하는 건축의 형태유형을 phenotype, 심층구조에 해당하는 추상적 규칙을 genotype 이라 정의한다. Social Logic of Space. 12쪽

20) 김광언 앞책 461쪽

차이	서부	동부
경제생활 형편	좋다	나쁘다
양반문화 영향	남·녀에 대한 구분	남·녀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음
분가전 취사방식	안거리 공동취사	정지거리 공동취사 또는 안거리 공동취사
식사공간	남:상방 또는구들 여:정지 또는챗방	정지
옷(숨)	덜귀함	귀함
주거거 및 작업공간	상방, 구들, 정지, 풍 낭(동나무밑) 고루 사용	정지중심
중간살이 이상 주거형태	정지가부속된 안거 리4칸형 선호	정지거리 분동선호

표 2. 생활방식에 의한 차이 성분분석

#### 4. 文化地域<sup>24)</sup>의 추정

##### 4-1. 儒敎 兩班文化의 차이

지금까지 제주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육지와 비교하는 연구가 주였으나 근래에 지역내에서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인구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 보면 이창기의 연구에서 남북이 아닌 동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해방전인 1925년부터 1985년까지 읍면별 평균 가구원수를 분석한 결과 서부의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이 평균보다 적게 나타나고 동부의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조천읍, 구좌읍이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sup>25)</sup> 이를 해석하여 가족제도상의 차이와 영농조건 차이의 가능성으로 제주도 단일문화권의 재검토를 제시한다. <sup>26)</sup> 최재석은 동부의 한·촌락의 가족 연구에서 이혼, 재혼률이 현저히 높은 현상을 제주도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로 “여성 생활력의 강함”과 “유교적 전통의 회박 내지는 결여”로

설명하는데<sup>27)</sup> 그후 김혜숙은 비슷한 연구를 서부의 한 마을에서 수행하고 최재석 연구와의 상당한 차이, 즉 서부의 재혼률이 반대로 낮은 점을 발견하고, “동부지역이 서부에 비해 유교 지배를 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sup>28)</sup> 그후 松本誠一은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동서간 차이를 더 부각시키면서 조심스럽게 ‘문화지역’을 제시한다.<sup>29)</sup>

근대 이후의 제주도 행정구역은 남북으로 나뉜다.- 북쪽에 제주시, 북제주군, 남쪽에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동서로 긴 지리적인 모양에 따라 제주목을 가운데로하여 대정현과 정의현(성읍)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학문과 덕행이 높은 학자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유교문화가 서민들에게 보급되게 되는바<sup>30)</sup> 유배자수를 보면 서부의 대정고을이 동부의 정의고을이 비해서 유배자가 2배정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특히 실학자 추사 김정희는 유배되어 제자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그의 적거지(謫居地:귀양지)는 서부에 있다. 따라서 서부가 동부에 비해 유교문화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시 서부에서는 정지와 상방을 남녀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손님은 큰문(대문: 상방문)으로 모셔서 방으로 모십니다. 부녀자는 대문으로 안 모십니다. 부녀자는 부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영부인일지라도 부엌으로 모십니다. 옛날은 남녀차등이 있어가지고, 여자가 딸이여 어떻게 대문으로 치마를 걷으며 들어가느냐행 부엌으로 다녔죠.” (서부: 명월리. 남 50)

27) 최재석 앞글, 186쪽  
 28) 김혜숙, “제주도의 1인가족 연구” 『제주대논문집』 (1985) 343쪽  
 29) 松本誠一, “제주도 가족의 검토- 세대규모의 동서차” 『탐라문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186-87쪽  
 30) 홍순만, “제주도의 역사1”, 송상일, “주호인에서 오늘의 신제주인 까지” 『한국의 발전 제주도』 10권 (뿌리깊은 나무, 1983) 62-63, 144쪽  
 31) 현중화, 『제주도지』 (제주도, 1982) 255-64쪽

24) 문화지역(culture area): 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인류학의 고전 이론. 문화가 거의 같은 지리적 지역. Boas의 친구 Clark Wissler(1870-1947)에서 시작. Merwin Garbarino, Socio 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1977, p. 51  
 25) 이창기, 앞글 (1987) 197쪽  
 26) 윗글, 201쪽

또 다음과 같이 서부에서는 식사 장소도 남녀간 분리되어 있음이 보편적임을 알수 있다.

“남자들은 방이나 마루서, 여자들은 부엌이나 청방에서 먹었죠. 찻방이라고도 하고. 남자는 양반집이 어떻게 해서 남자가 부엌에서 밥을 먹느냐 해가지고 따로 먹었죠.” (서부: 위 사람)

“찻방은 음식 차리고 대개 거기서 음식을 먹죠. 여자들만. 남자들은 상방에 앉아서 먹고. 여자들이 체려서 갖다주죠. 남자들은 양반이었죠. 옛날에는 겸상이 드물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부: 유수암리 남 76)

“식술이 많으면 복잡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상방에 다 따로 갖다놓고 여자는 부엌 안에서 먹고.” (서부: 동일리. 83 여)

“옛날에 남자들은 마루[상방]에서 먹었고 여자하고 애들은 부엌에서 먹었주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제창문이라고 있어서 마루에 제일 어른이 앉아서 식사도 독상 채려서 드리고 했주.” (서부 창천리 57 남)

동부에서는 서부와는 달리 작업공간으로 정지를 사용했고 그 자리에서 남녀의 구분없이 공동식사를 하였던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앞 정지거리 생활 면담, 함덕리 81 부부 참조)

“남자들 여자든 정지에서 근 20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부 송당리 70 남)

“잠은 부엌에서 자고 밥도 부엌에서 먹고 어떻 마루에 가 먹어?” (동부 하도리 55 여)

“여기는 다 정지에서 밥을 정지에서 먹었지. 별도로 마루하고 정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먹지는 않았어.” (동부 하도리 69 남)

동부에서 남녀 구분 식사가 오히려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옛날에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따로 먹었습니다. 우리집은 옛날부터 양반의 집으로 불편해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른집은 그런데가 [정지에서 남녀 다함께] 많고, 같이 어우렁 정지에서. 우리집은 경[그렇게] 앉았습니다.” (동부 신흥리 60 여)

동부에서 식사를 대부분 정지에서 한다는 본 연구의 면담내용은 앞글 현영숙의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상의 식사공간의 남녀 분리 여부의 동서간 차이의 원인을 해석하면, 동부는 서부에 비해 유교문화의 영향을 덜 받아서 남녀 구분의 전

통이 희박하였다고 추정한다. 그리할 때 본 연구에서의 분명한 현상으로서 동부 정지거리의 ‘비여성 공간화’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 4-2 自然環境의 차이

자연환경이 건축형태에 영향을 줌은 당연하다. 제주도는 토양의 성질이 지역별로 달라 작물 재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논농사가 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그림13의 ①번 서쪽해안의 비교적 비옥한 땅에서 보리 농사가 가능하나 척박한 산성땅인 ③번 화산회토지역은 동부의 정의현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데 조가 주작물이 된다. 동부에서는 토양이 척박함으로 토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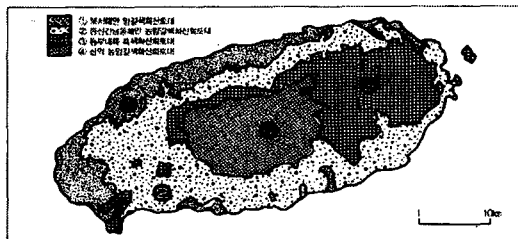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도의 토양분포 (번호 ①②③④는 비옥한 순서)<sup>32)</sup>

산성이 낮아서 경지면적이 증대하게 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서부에서는 작은 면적에도 살아갈수 있지만 동부에서는 공동작업을 해야하고 경제적 독립이 어려웠다.<sup>33)</sup> 이로써 남녀 미분리라든가 여성의 단독가구가 성립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성땅을 중화하기 위하여 다량의 재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재를 모아두는 별도의 부속 건물, 즉 ‘불침막’이 동부지역에 나타나게 된다.(그림14) 면담에 의하면 (신흥리 70대 남) 여름에 풀, 즉 ‘출’을 베어다가 산더미처럼 쌓아서 말린 후 (‘검질’이라 함) 정지에서 연료로 맨 다음 재가 모이면 불침막으로 옮기는데 적어도 집집마다 3, 40가마 이상씩을 했다고 한다. 정

32)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이해」, (제주:파피루스) 1998, 249쪽

33) 이 내용은 99.4.3 65차 제주학회 발표후 토의시 제주대 농과대학 현해남 교수의 언급이다.

지거리 내부 그림8에서와 같이 솔 뒤에 재를 뭉을수 있는 넓은 공간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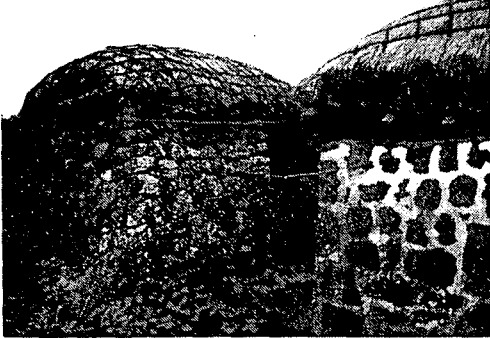


그림 14. 불침막 (동부에만 나타남)

토양의 성질의 동서부 간의 차이는 경작물과 농사 방식, 경지 면적에도 차이를 주지만, 농기구 형태의 차이를 낳고<sup>34)</sup>, 바람의 세기의 차이는 건물 외부의 바람 차단막(풍채)의 형태에도



그림 15. 서부 선풍채, 동부 단풍채

영향을 준다. 서부에는 바람 차단이 더 효율적인 선풍채가, 동부에는 단풍채가 설치 되었다. (유수암리 목수 증언). 이상과 같이 기후 풍토에 의한 동서부간의 지역적 차이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고 건축형태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추론을 한다.

또한 기후적인 요소중 바람이 제주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서부가 동부에 비해서 바람이 세다. 바람이 강하다고 하는 풍속 8m (시속 30km정도) 이상일수가 서부 대정이 동부 성

산보다 3배에 가깝다. 바람으로 부터의 보호와 대지의 상대적 좁음이 서부는 2거리형, 또 동부는 정지거리를 포함 다거리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추론한다. 선행연구의 실측도면을 분석하면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볼 때 서부보다 동부가 현저하게 대지 내의 거리수가 많게 나타난다. 서부는 두거리 위주이고, 동부는 두거리 세거리가 반반에 네거리도 많이 나타난다.<sup>35)</sup> 위 자연환경에 의한 동서부 차이 내용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차이	서부	동부
바람	강하다. (풍속 8m/s이상일수: 대정165일)	약하다 (성산 59일)
토양	비옥하다(암갈색화산토대)	척박하다(흑색화산토대)
보리 농사	잘된다.	안된다.
형성 촌락수	많다.(77 개소)	적다.(49개소)
경작지, 대지 면적	좁다	넓다
곡식의 종류	적다(보리, 조)	많다(조, 밀, 산두, 메밀)
취사후 재의 비료 사용	적게사용	많이사용

표 3. 자연환경에의한 차이

4-3 기타 東/西部의 細部 建築的 차이 자세히 보면 동서부간의 건축형태가 약간 다른 것이 나타난다. 건물의 배치상 거리의 수,

차이	서부	동부
건물동배치 유형	두거리형	다거리형
채방	전역에 걸쳐서 나타남	서부와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남
풍채 (바람막이)	선풍채(방풍효과大)	단풍채(방풍효과小)
헛간과 쇠막 (헛발, 가리의 수)	덜발달함 (헛발이 좁고 가리의 수가 적음)	발달함 (우영이 넓고 늘의 수가 많음)

표 4. 동서부의 건물 세부차이

34) 토양의 차이에서 오는 동서부간 농기구의 차이가 있다. 경토심이 깊은 땅을 파는, 동부에만 나타나는 남따비가 있다. 『제주도지, 제3권 (제주도, 1993) 1051쪽

35) 송병언, 앞글, 99-100쪽. 서부 총 27호중 두거리 16호 (60%) 세거리 9호(33%), 동부 총 112호중 두거리 44호 (39%), 세거리 42호(38%), 네거리 25호(22%)로 나타났다.

큰구들 곁에 딸려 있어 식사를 주로 하는 방인 찻방의 형성, 바람과 눈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풍채'의 설치, 짚이나 마소의 풀 따위를 차곡차곡 등그렇게 쌓아 올린 더미인 놀과 외양간인 '쇠막'의 발달이 세부적인 차이로 나타나며 표4과 같다.

#### 4. 綜合

지금까지 문화인류학에 바탕을 둔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 “정지거리 별동형 민가”를 새로운 건축유형으로 발견하였다. 이 유형은 ‘정지없는 안거리+ 별동 정지거리’로 구성되며, 제주도의 동부에서만 나타난다. 정지거리 별동형은 기존 건축계의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바와는 달리 특수형도, 근래형도, 부자양반형도 아님이 드러났다. 이 형태유형은 가족제도상 이미 학계에 잘 알려진 안팎거리 분가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미분가 공동경영’ 유형과 짝을 이룬다. 이는 동부의 유교 남녀구분 전통이 비교적 미미한 성질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 정지거리 건축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주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동서부간의 ‘문화지역’(culture area)을 설정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또한 토양과 그에서 나는 농산물과 미세 기후의 다름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과 결부시켜서 동서부간의 문화지역을 보장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건축형태를 물질로서가 아니라 삶과 연관시켜 종합체로 보는 시도를 하였다.

후기: 이 논문은 98년도 송병언의 중앙대 건축미술학과 석사논문과(이희봉 지도), 98 건축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99.4 제주학회 발표, 99 건축역사학회 추계 발표논문 순으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 해석한 것이다.

#### 참고문헌

Colquhoun, Alan, "Typology and Design", *Per-*

*specta*, 1969  
 Spradly, J. *Participant Observation*,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1988  
 ———.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9  
 강행생, “제주도 안팎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85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 논문, 1996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 우용출판, 1998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결혼 연구”, 성신여대 박사 학위 논문, 1993  
 김홍식, 「한국의 민가」, 서울:한길사, 1992  
 김홍식외, 「제주의 민속 IV」, 제주도, 1993  
 송병언, “생활문화로 본 제주 민가 고찰”, 중앙대 대학원 건축미술학과 석사 논문, 1999  
 송병언, 이희봉, “생활문화로본 제주도 민가고찰”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1998. 10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1998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 논문, 1992,  
 이희봉, “집이란 무엇인가?-강릉 선교장의 해석”, 「한국건축역사학회지 '98년도 추계발표 논문집」, 1998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1993  
 제주도교육청,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1996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현영숙, “제주도 전통가옥의 공간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2  
 松本誠一, “제주도 가족의 검토- 세대규모의 동서차” 「탐라문화」, 1991

# Interpretation of the Folk House Type at Cheju Island into Meaning of Culture Area by Corresponding Kitchen Form to Dwellers' Life

Lee, Hee-B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ong, Byeong-Eon

(Maste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Art,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 house as material into culture. Main method is an ethnographic interview with dwellers as a part of a participant observation, a kind qualitative study.

Significantly two different types of folk housing are discovered in East and West areas of the Cheju Island. In the East, kitchen itself forms a separated building, Jeongji-gori, whereas in the West, kitchen is within a main building, An-gori. Different type of kitchen is formed by the different family system. While independent family system of son and father selects a separate kitchen building as a general rule of Cheju Island, an extended family system between father and son selects same kitchen, Jeongji-gori, in the east area. Natural environment of infertile soil of east area makes family work together and eat together. Inner space of the kitchen building is utilized not only in cooking but also in eating, working, and sleeping.

In order to explain folk house type, a 'culture area' concept is suggested. The interrelated 'cultural type' of architecture behind a physical surface 'type' is suggested as a new typology.